

우리나라 가구의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정기조사 분석 - 2020년 3분기

문동현 지정훈 김상호 | KREI 농식품시스템연구부

개요

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「2020년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」을 수행 중임. 「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」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, 이번 호에서는 2020년 7~9월의 정기조사 내용을 묶어 분석하고 요약하여 제시함.

본 분석은 전국 농식품 주구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짐.

구분	조사시점	조사 가구 수	조사 대상	조사 방식
7월 조사	2020.07.30. ~ 08.05.	2,066 가구	20대 이상, 60대 이하의 식품 주구매자	온라인 설문조사
8월 조사	2020.08.27. ~ 09.04.	2,000 가구		
9월 조사	2020.09.24. ~ 10.06.	2,000 가구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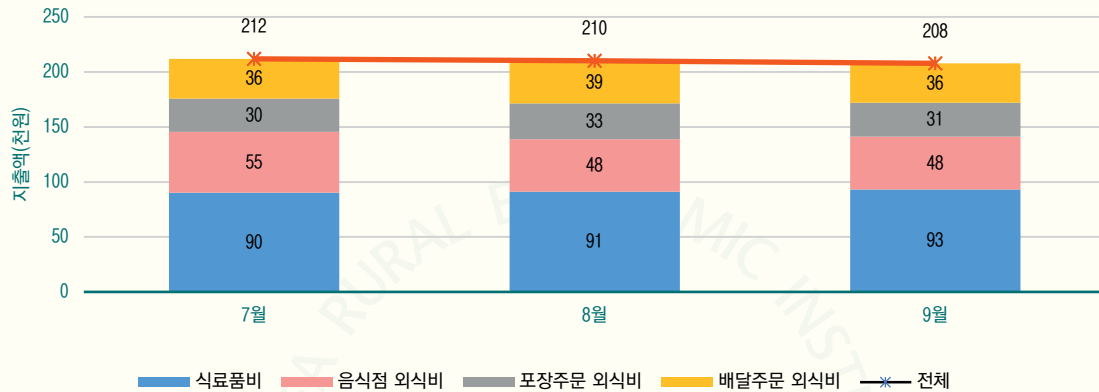
종합의견

- **2020년 8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는 음식점 외식을 줄이고,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빈도를 늘렸음.**
 - 9월 가구의 외식비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다소 회복됨.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면 가구의 음식점 외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.
 -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구들은 식료품 매장 방문을 줄이고,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늘리거나 포장 및 배달 음식 지출을 확대함.
- **우리나라 가구의 식생활에서 원산지의 중요성은 확대되는 추세임.**
 - 가구들이 온/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식품 특성을 평가한 결과, 원산지 특성에 대한 중요도가 7월부터 9월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가구들이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,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. 특히 육류에 대한 원산지 정보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.
- **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, 이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있었던 8월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짐.**
 - 규칙적인 식사, 과일 및 채소 섭취, 다양한 종류의 식품 섭취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, 실제 식생활에서의 실천은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

01 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 동향

- 2020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일주일 평균 식품지출액은 약 21만 2천 원이었으며, 8월 약 21만 원, 9월 약 20만 8천 원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임.
- 조사응답 가구의 일주일 평균 식료품비 지출은 7월 약 9만 원, 8월 약 9만 1천 원, 9월 약 9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음.
- 반면, 가구의 일주일 평균 음식점 외식비는 7월 약 5만 5천 원에서 8월 약 4만 8천 원으로 감소함.
- 한편, 8월 포장음식 지출액과 배달음식 지출액은 각각 7월 대비 2,610원, 2,656원 증가하였음.
-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는 음식점 외식을 줄이고, 가정 내 식사를 늘린 것으로 판단됨. 이는 2~4월의 1차 위기 때와 유사함.

[그림1. 가구의 일주일 평균 식품지출액 구성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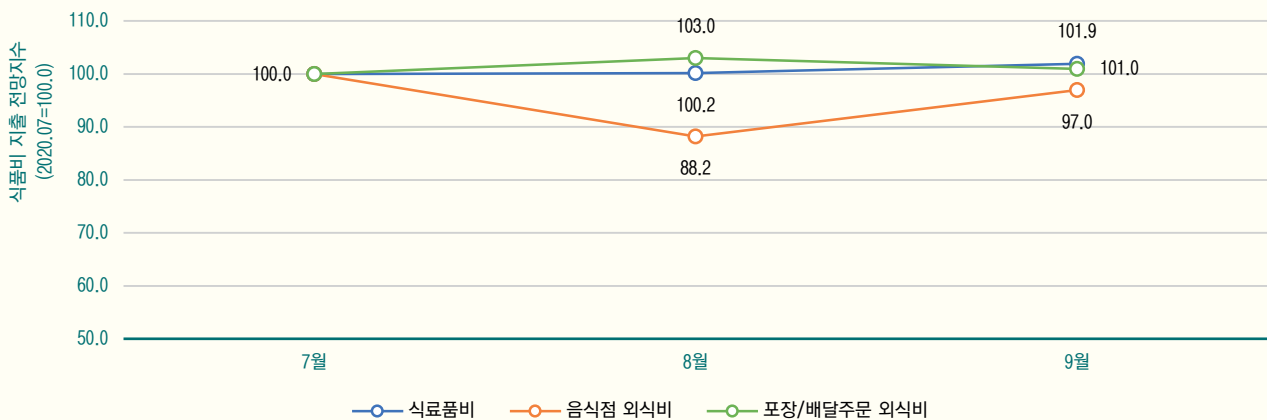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- 가구의 8월 음식점 외식비 지출 전망지수는 100.0에서 88.2로 크게 감소한 반면, 식료품비 지출 전망지수와 포장/배달주문 외식비 지출 전망지수는 각각 100.2와 103.0으로 다소 증가함.

- 음식점 외식비 지출 전망지수는 8월 88.2로 전월 대비 11.8% 감소하였으나 9월 97.0로 전월대비 9.95% 높아짐.
- 8월 식료품비 지출 전망지수는 100.2로 전월대비 0.16% 증가. 9월에는 101.9로 전월 대비 1.7% 높아짐.
- 포장 및 배달주문 외식비 지출 전망지수는 8월과 9월에 각각 103.0 (전월 대비 +3.0%)와 101.9 (전월 대비 - 2.0%).

[그림2. 가구의 식품비 지출 전망지수]



주: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은 가구의 식품비 지출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농민 및 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비 지출 전망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함. 식품비 지출 전망지수는 식료품비, 음식점 외식비, 포장/배달주문 외식비 지출전망지수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발표함.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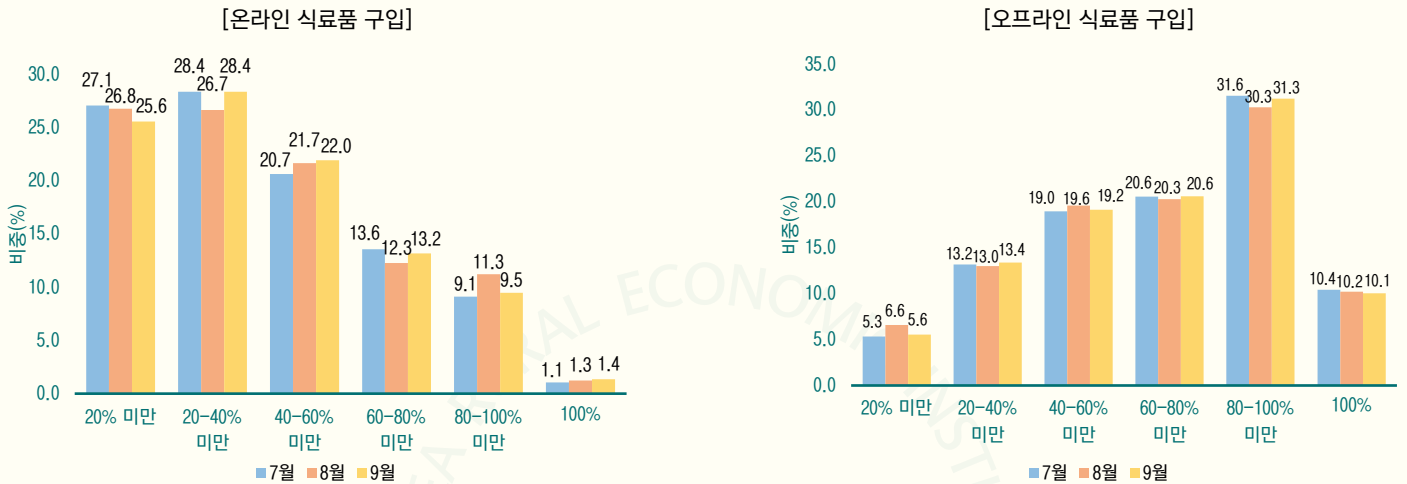
2.1. 식료품 - 온라인 vs. 오프라인, 어디서 구매하나?

-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했던 2020년 8월에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80%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다소 증가

- 8월 기준, 전체 식료품 구매 중 온라인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%를 넘는 가구의 비중은 12.6%로, 전월(10.2%)에 비해 약 2.4%p 증가함. 반면, 오프라인 식료품 구매 비중이 80%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8월 40.5%로 7월 42.0%에서 약 1.5%p 줄어들음.

- 하지만, 코로나19의 확산이 완화된 2020년 9월 온라인 식료품 구매 비중이 80%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9.5%로 감소함. 오프라인 식료품 구매 비중이 80%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41.4%로 8월과 비교해 약간 증가함.

[그림3. 가구의 온/오프라인 식료품 구매 비율 변화]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2.2. 식료품 구매기준 - 무엇을 보고 구매하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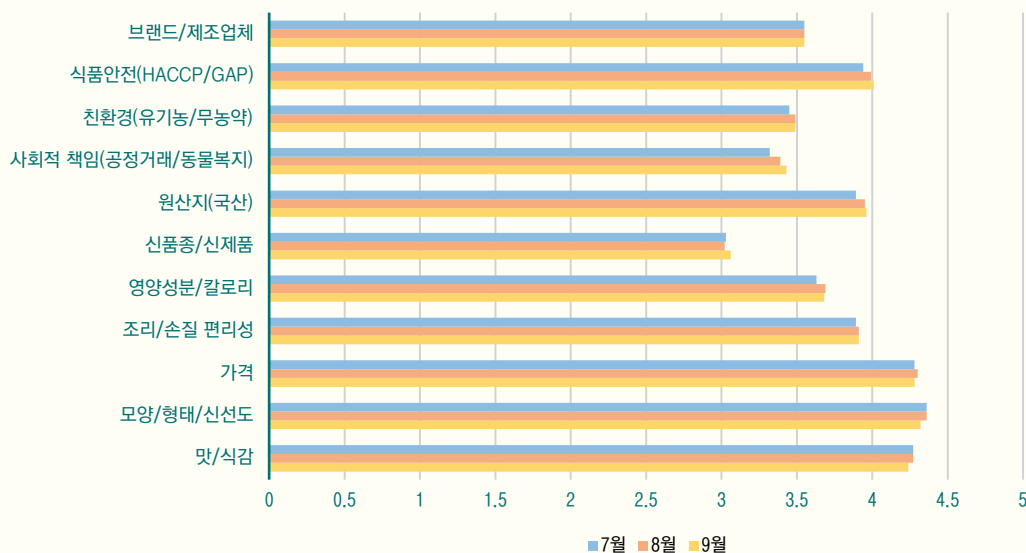
- 가구는 식료품을 구매할 때 맛/식감, 가격, 모양/형태/신선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함.

- 국내산 여부, 사회적 책임, 식품안전 등을 고려하는 소비성향이 강화되는 추세

- 가구들이 온/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식품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한 결과 '원산지(국산)', '사회적 책임(공정거래/동물복지)', '식품안전(HACCP/GAP)' 특성에 대한 중요도가 7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.

[그림4. 가구가 식료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]

단위: 점(5점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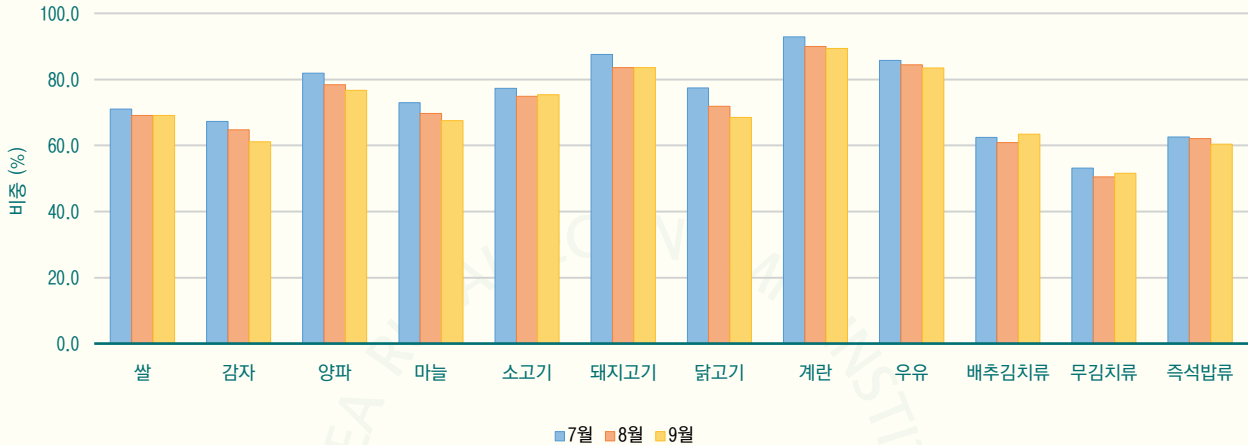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2.3. 식료품 - 무엇을 샀는가?

- 지난 2주간 주요 식료품 품목에 대한 가구의 구매 경험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모두 감소. 이는 2020년 8월에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가구들이 식료품 매장 방문을 줄인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.
- 8월에 닭고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전월 대비 5.5%p 감소하며, 주요 식료품 품목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.
- 이어서 돼지고기(4.1%p), 양파(3.5%p), 마늘(3.3%p) 순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함.

[그림5. 주요 식료품별 가구의 구매 경험 (지난 2주간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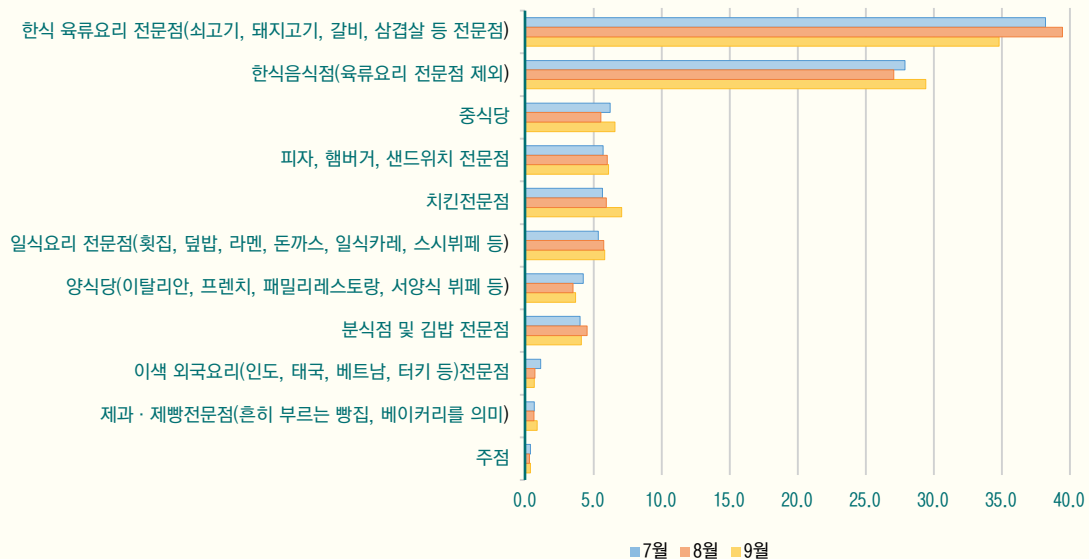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2.4. 외식 - 무엇을 먹는가?

- 음식점에서 외식할 때 가구는 주로 한식 관련 음식점(한식 육류요리전문점, 한식음식점)을 가장 많이 방문
- 외식할 때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과 한식음식점을 1순위로 방문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2020년 7월에는 66.2%, 8월에는 66.7%, 9월에는 64.4%로 나타남.
- 이어서 중식당이 7월 6.3%, 8월 5.6%, 9월 6.6% 정도였으며, 치킨전문점은 7월 5.7%, 6.0%, 7.1%로 나타남.

[그림6. 가구의 음식점 방문 1순위]

단위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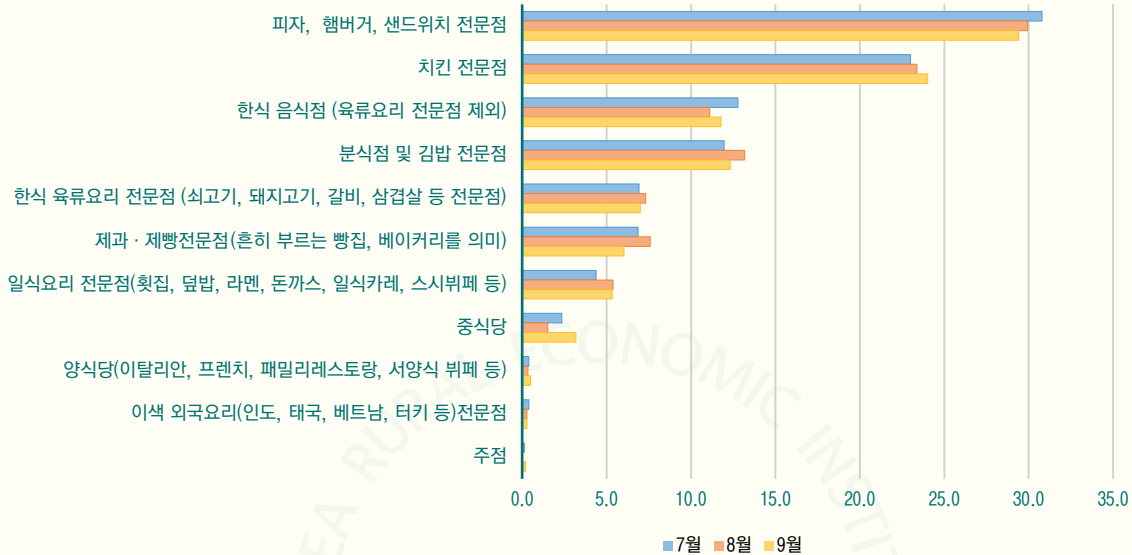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- 가구는 포장 음식을 주문할 때, 주로 ‘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’ 이나 ‘치킨전문점’, ‘분식 및 김밥 전문점’, 그리고 ‘한식음식점’ 을 이용
- 포장 주문할 때 ‘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’ 을 1순위로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30.0% 수준으로 음식점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남.
- 이어서 ‘치킨전문점’ (23.5%), ‘분식점 및 김밥 전문점’ (12.5%), ‘한식음식점’ (11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- 한편, 7월부터 9월까지 포장 주문 시 ‘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’ 을 1순위로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, ‘치킨전문점’ 을 1순위로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임.

[그림7. 포장 주문 시 가구가 주로 이용한 음식점]

단위: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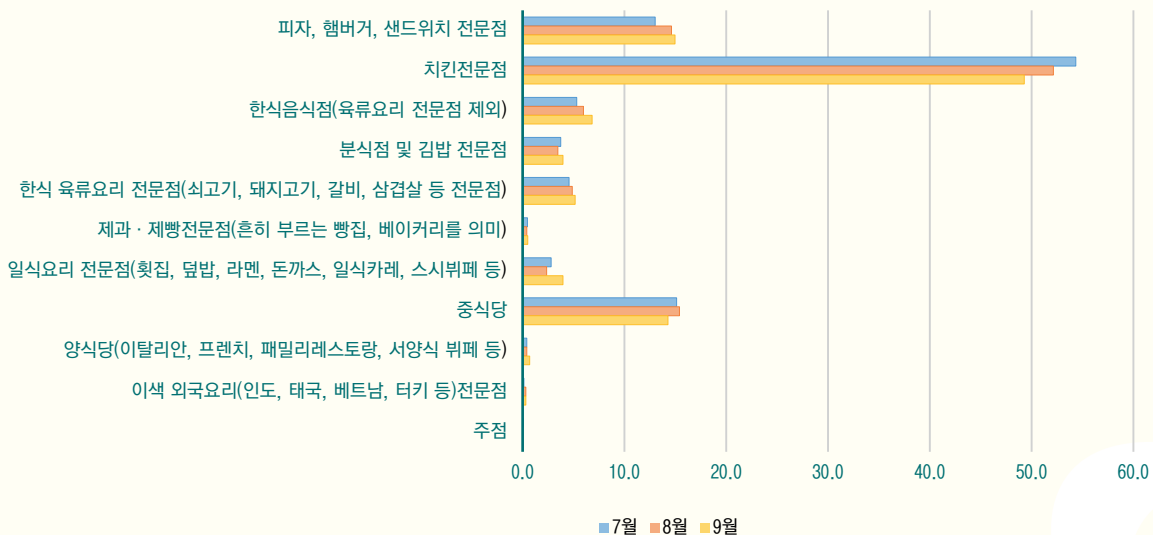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- 배달 음식의 경우 가구는 ‘치킨전문점’, ‘중식당’, 그리고 ‘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’ 을 주로 이용

- 배달 주문할 때 ‘치킨전문점’ 을 1순위로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51.9%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.
- 이어서 ‘중식당’ (14.9%), ‘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’ (14.2%), ‘한식음식점’ (6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- 한편, 7월부터 9월까지 배달 주문 시 ‘치킨전문점’ 을 1순위로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, ‘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’ 을 1순위로 이용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임.

[그림8. 배달 주문 시 가구가 주로 이용한 음식점]

단위: %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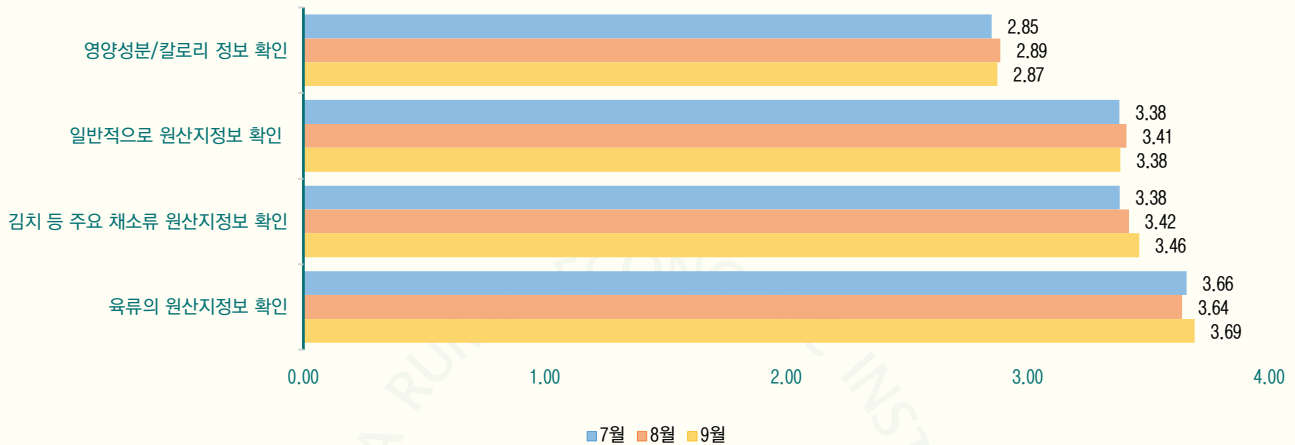
2.5. 외식 - 원산지 정보를 보는가?

● 음식점 내에서 식사할 경우 가구는 원산지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주문하는 경향을 보임.

- 5점 척도를 기준으로 '원산지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주문한다' 는 문항의 점수는 약 3.3~3.6점 수준으로 나타남.
- 특히, 육류의 원산지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됨.
- 반면, '영양정보나 칼로리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주문한다' 는 문항의 점수는 약 2.8점 수준에 머무름.

[그림9. 음식점 내 외식 시 가구의 원산지 및 영양성분 확인 행태]

단위:점(5점 평균)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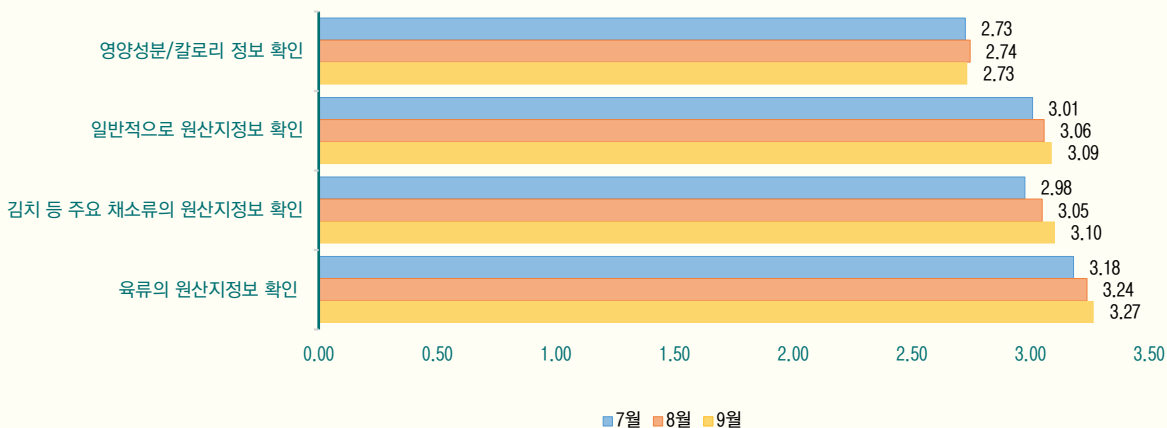
● 가구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포장이나 배달주문 할 때 원산지 정보를 덜 확인하는 경향을 보임.

● 하지만, 포장 및 배달 음식 주문 시 가구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행태는 증가하는 추세임.

- '일반적으로 원산지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' 는 문항의 점수는 2020년 7월 3.01에서 9월 3.09까지 증가하였음.
- '김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 정보 확인' 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2.98에서 9월 3.10까지 증가함.
- '육류의 원산지정보 확인' 은 2020년 7월 3.18에서 9월 3.27까지 증가하였음.
- 반면, '영양정보나 칼로리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' 는 문항의 점수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.7점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.

[그림10. 포장 및 배달 음식 주문 시 가구의 원산지 및 영양성분 확인 행태]

단위:점(5점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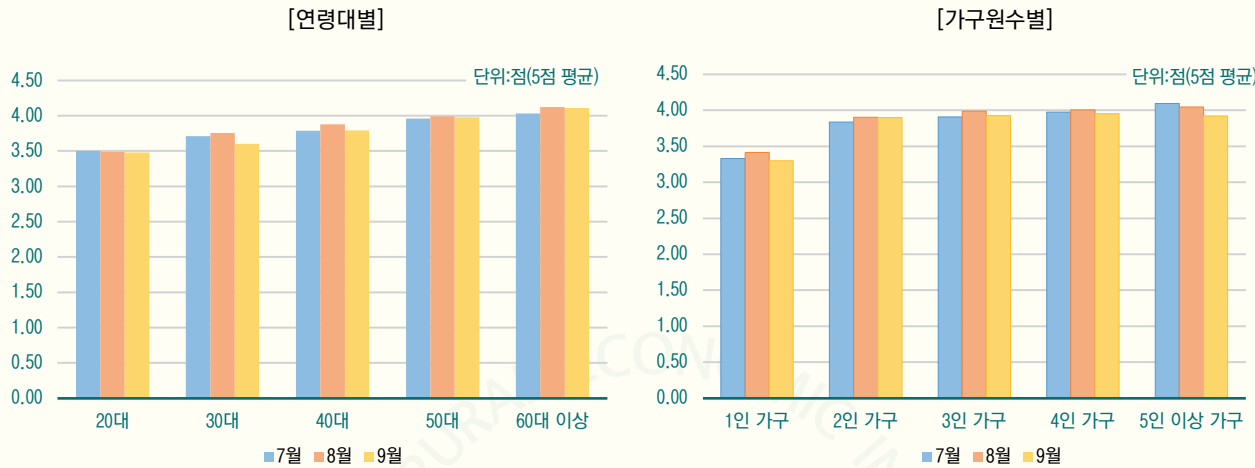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03 가구의 식생활 현황

- 전반적으로 가족과의 식사 중요성에 대한 가구의 인식은 높은 수준임.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, 가구 내 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 가족과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.
- 20대에서 '가족과의 식사가 중요하다' 는 문항의 점수는 3.48~3.50 수준인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4.03~4.11 수준으로 나타남.
- 7월~9월 동안 가구들이 생각하는 가족과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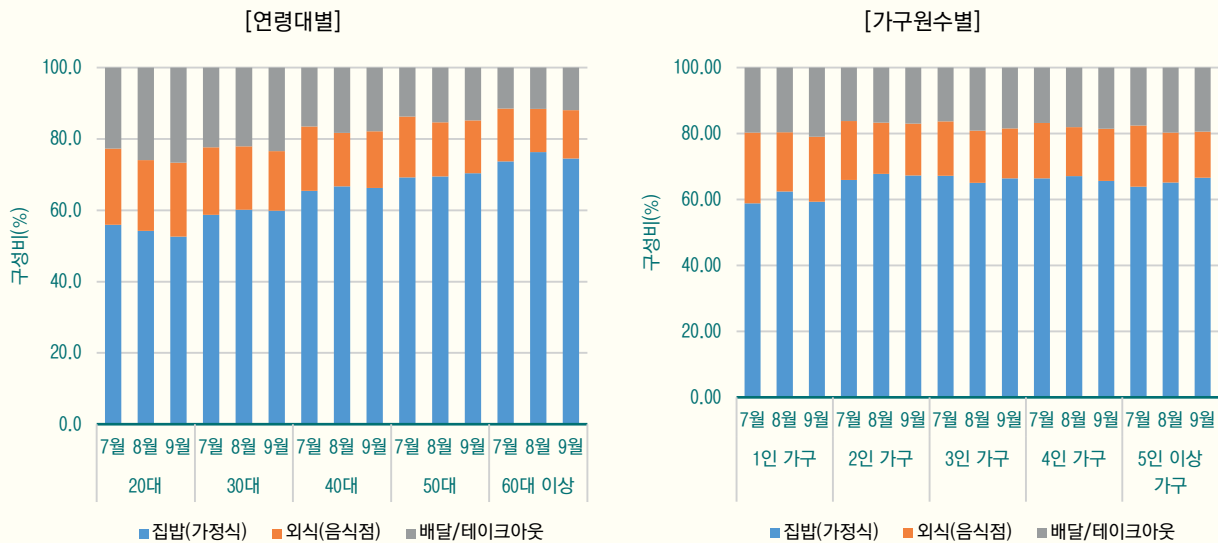
[그림11. 가족과의 식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]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- 평균적으로 가구가 생각하는 식사 구성의 바람직한 구성 비율은 집밥 65.1%, 외식 16.7%, 배달/테이크아웃 18.1%
-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집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함.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8월 조사에서 7월 조사 때보다 바람직한 식사 구성에서 집밥의 비중을 높게 평가함.
- 1인 가구들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 바람직한 식사 구성에서 집밥의 비중을 낮게 평가함. 집에서 식사하면 혼자 식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
- 이와 대조적으로 2인 가구들은 집밥의 구성비를 상당히 높게 생각하였는데, 다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이기가 쉽고, 가족과의 식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.

[그림12. 바람직한 식사의 구성비(가정식, 음식점, 배달/테이크아웃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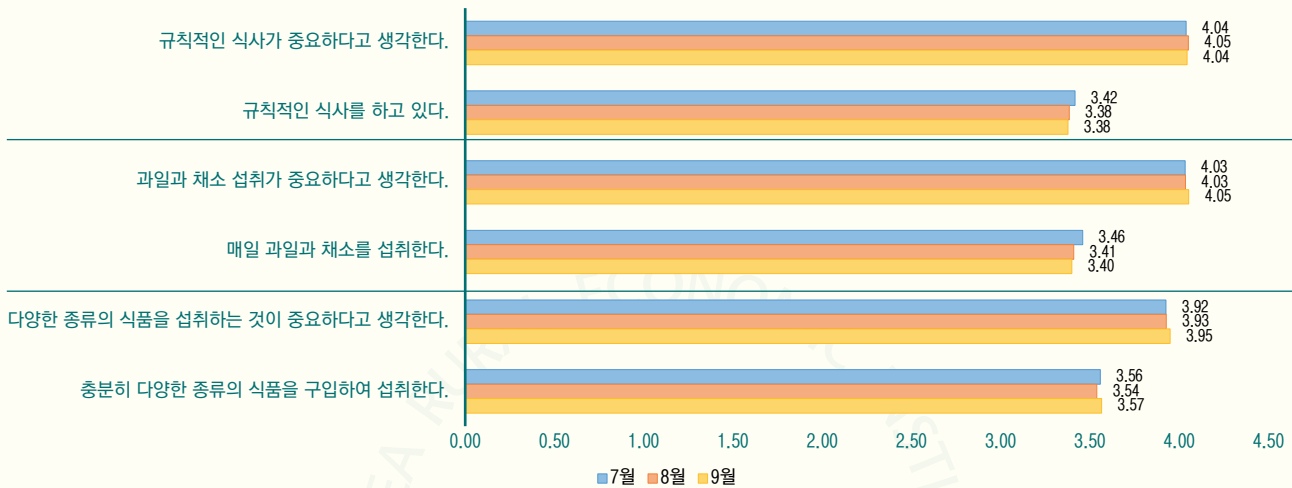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03 가구의 식생활 현황

- **가구들은 규칙적인 식사, 과일/채소 섭취, 다양한 식품 섭취를 중요하게 여겼지만, 실제 식생활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**
 - 5점 척도를 기준으로, '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' 는 문항의 점수는 4.04점, '과일과 채소 섭취가 중요하다' 는 문항의 점수는 4.04점, 그리고 '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' 는 문항의 점수는 3.93점으로 각각 나타남.
 - 반면, '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' 는 문항의 점수는 3.39점, '매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' 는 문항의 점수는 3.42점, 그리고 '충분히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다' 는 문항의 점수는 3.55점으로 나타남.

[그림13. 가구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도]

단위:점(5점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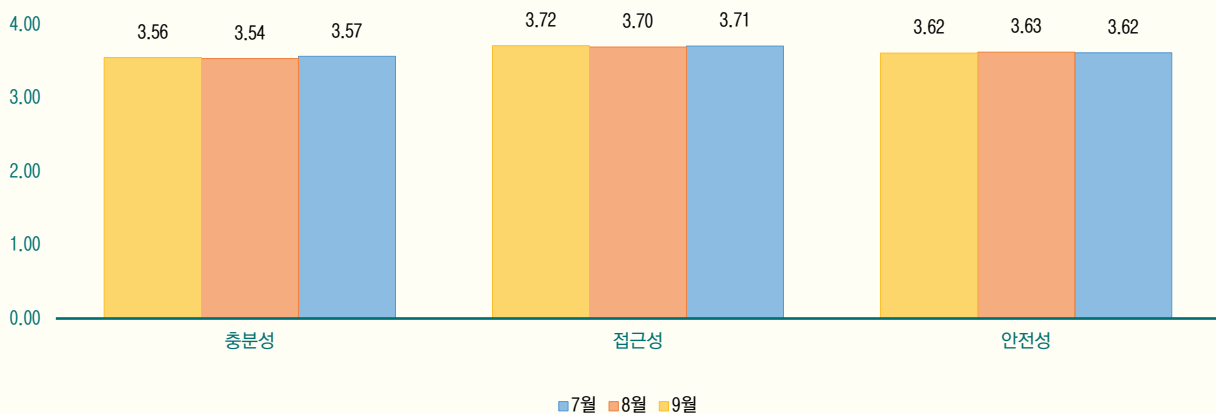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

- **가구의 식품안정성을 안전성, 접근성, 충분성의 3가지 요인으로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, 충분성 3.56점, 접근성 3.71점, 안전성 3.62점.**
 - 충분성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안전성과 접근성 보다 다소 낮은 특징을 보임.
 - 전반적으로 안전성, 접근성, 충분성 점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, 식품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.
 -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충분성, 접근성,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. 1인 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[그림14. 가구의 식품안정성 평가]

단위:점(5점 평균)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(2020.07, 08, 09)를 기초로 저자 작성